

운동환 민법 강의계획서

| ■ ■ 담 당 | 운동환 |
|-------------------|---|
| ■ ■ 강의일정 | 2016.3월 10일(목)~4월 23(토)까지 총 40회 + 1회 수업 오전 9시 10분~12시 40분(오전 8시 30분~9시 10분까지 전날 배운 내용에 대한 매일 OX 및 사례꼭지시험과 해설강의) |
| ■ ■ 공개특강 | 3월 10일(목) 오전 9시~12시 30분 3월 10일, 11일은 민법총칙부터 채권각론까지 권리변동의 시간흐름에 따른 민법체계의 재구성 및 객관식 및 주관식 통합 공부방법론 (공개특강날 조문과 김준호 민법강의 책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무료특강 (동영상) | 민법 기초입문특강(김준호 著 기초입문) 동영상 강의 사전제공(무료) 개강 전 미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 ■ ■ 강의교재 | 김준호 민법강의(2016년판) + 정리된 요건사실론 및 사례구조론(제공) + 최근 3개년 민법판례의 맥 + 기출 김준호 저 밑줄자료(제공) |

※ 운동환 강사 약력 및 저서

민사법전문 강의 15년, 서울대 졸업(법학사, 경제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사법 전공,
사법시험 2차 민법 90% 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

성균관대·한양대·단국대·전남대·전북대 등 주요대학 특강 및 모의고사 문제 출제위원
경북대·제주대 로스쿨 특강

주요저서 : 로스쿨용 및 사시용 민법의 맥, 민법사례의 맥(이하 고려대 김제완 교수님 감수 및 교수 채점평 포함)
민사법 핵심지문총정리(민법+민소법+상법), 민사법 종합사례의 맥(민법+민소법)
객관식 민법사례의 맥, 슬림한 친족상속법의 맥
민법 주제별 논리(사례)구조 및 필수암기 요건, 효과, 판례(평석)
변호사시험 기출의 맥(민법+민소법+상법), 사법시험 2차 민법기출의 맥 외 다수

※ 보충교재 3개년 민법판례의 脈 특징

① 최신 판례의 다양한 변형과 해당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해당판례와 관련한 ‘쟁점정리’, ‘비교판례’, ‘관련판례’ 들을 꼭 필요한 만큼 소개하였습니다. ② 단순히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 지문화하여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는 ★ 또는 ★★로 표시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판례를 활용한 ‘사례문제’도 소개하였습니다. ④ 최근 3년간의 판례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극히 지엽적이거나 매번 반복적으로 판시된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수험적인 효율을 위해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⑤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2011년~2012년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중요판례만 소개하였습니다.

※ 그 동안의 민법 강의에서 맞보지 못한 새로운 프레임의 강의

1. 객관식 강의는 객관식답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관식에 대비될 수 있게 공부

- ① 주지하는 바와 같이 i) 주관식 사례형 문제가 5점~10점의 분설형 문제형식을 통해 결국 객관식 사례화되고 있으며, ii) 반대로 객관식 문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풀 수 없을 만큼 수준 높은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객관식과 주관식 공히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관식은 판례의 논거적시와 이에 대한 자신의 논리로 당사자의 분쟁상황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점, 쟁점구조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 ② 그럼에도 주관식 경험이 없는 객관식 합격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주관식 민법공부를 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식을 공부할 때 **조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 **중요판례의 분쟁상황과 함께 이에 대한 판례의 논거를 충분히 숙지하여** ⇒ **현실 분쟁상황을 해결하는 연습, 즉 사례연습을 충분히 하였다면** 객관식과 주관식 공부에 무슨 차이점이 있겠으며, 객관식에서 고득점을 했는데 주관식에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2. 조문 ⇒ 판례 ⇒ 사례로 이어지는 '통합 기본강의'

민법은 민총(계약의 성립) ⇒ 채권(계약의 이행) ⇒ 물권(물권변동)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정치한 논리구조이므로 민법을 포함한 민사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각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고', '자발적인' 사고능력 없이는 앞으로의 각종 시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법과목은 공통적으로 **조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 **중요판례의 분쟁상황과 함께 이에 대한 판례의 논거를 충분히 숙지하여** ⇒ **현실 분쟁상황을 해결하는 연습, 즉 문제해결능력이 관건**입니다. 이에 본 강사는 기존 기본강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프레임으로 조문 ⇒ 판례 ⇒ 사례해결이 어떻게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맞보여 드리겠습니다. **첫날 공개강의를 꼭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민법전과 기대감만 가지고 오십시오.

3. 민법의 기초개념, 각 주제별 리딩판례, 각 쟁점별 사례구조(주장-항변구조)를 철저히 분석

'김준호 著'를 통해 법학의 기초개념을 확립하여 이후 민사소송법, 상법 등 모든 법과목으로 이어지는 초석을 다지도록 합니다. 또한 각 '주제별 리딩판례'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판결이유를 분석하여 '판례법리'를 도출시키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후 **자기주도적 법학 학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쟁점별 사례구조'(주장-항변구조)를 연습하여 이후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 김준호 著 기본서 정리

1. 김준호 著의 선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김준호 교수님 著의 가장 큰 장점은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쓰여졌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객관식용으로는 판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객관식 민법정복에 대한 지론은 '빠짐없는' 판례가 아니라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는' '판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객관식은 모든 지문을 100% 알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주관식은 객관식처럼 많은 판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례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빠짐없는' 판례가 아니라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는' '판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례문제로 출제되는 판례는 구석진 판례가 출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김준호 著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저의 이번 강의 목표는 김준호 著를 각종 시험합격의 끝까지 여러분의 기본서로 또 참고서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관식의 경우 판례의 태도와 논거를 답안지에 현출하여야 하며 사안포섭을 위한 논리사례구조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관식의 경우에는 주관식 사례문제집, 객관식의 경우에도 문제집(또

는 모의고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김준호 교수님 저가 이러한 필요를 동시다발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권의 책만으로 민법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놓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번 강의의 목표는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에도, 주관식 사례를 연습할 때에도 항상 참고할 수 있도록 김준호 책을 ‘기본서 또는 참고서로서의 기능’, 이른바 민법이라는 집에 기둥을 세우는 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약조절하고 이해시키며,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객관식 및 주관식에 있어 고득점의 관건은 소위, ‘민법의 기초’가 얼마나 튼실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3. 기본서 3회독을 목표로(매일 핵심 OX지문 및 사례 쪽지시험)

본 강사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조문 ⇒ 판례 ⇒ 사례로 이어지는 ‘통합 기본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준호 책 강의로 기초판례이론(중요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거까지 확인)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전날 배운 주제에 대한 핵심 OX지문 및 사례문제에 대한 쪽지시험을 보는 등 기본강의 기간동안 최소 기본서 3회독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강생 여러분들은 강의를 통한 1회독, 혼자서 책읽기를 통한 2회독, 쪽지시험 및 사례문제풀이를 통한 3회독을 목표로 따라오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본서 읽는 방법 및 정리방법은 첫 날 공개강의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통합기본강의의 성과를 위한 조치들

1. 공부초기 민법정복을 위해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합니다.

첫날 공개수업 후 함께 최소 2개월에서 1년 단위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기본강의가 종강하는 날까지 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당일 강의 주제에 대해서는 일대일 질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직접 대면상담이 어려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은 가급적 공부 초기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어 전체적인 공부방향성을 확인해 볼 것을 권합니다.

2. 기본서 읽는 방법, 밑줄 및 별표 정리에 대한 방법, 복습방법을 숙지합니다.

40회 동안 당해 강의를 통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강생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첫날 공개수업을 통해 기본서 읽는 방법, 밑줄 및 별표 정리에 대한 방법, 복습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루하루 반드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3. 매일 쪽지시험 응시와 함께 자발적, 적극적, 통합적인 사고능력 배양

앞서 살펴본 객관식, 주관식 문제의 출제경향인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해서 저의 수험생 트레이닝 방법은 이른바 ‘자발적’, ‘적극적’, ‘통합적’ 사고를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관식의 경우 매일 사례문제에 대한 ‘논점추출연습’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민법지식이 어떻게 분쟁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객관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통해 최소 10분 이상 오늘 배울 주제에 대한 예습을 하고, 강의 후 기본서 목차를 중심으로, 또 제가 수업시간에 다루어 드리는 사례구조를 중심으로 목차구성 및 사례구조를 머리 속에서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하고 매일 쪽지시험에도 반드시 응시하시길 권합니다. 단기간에 고득점할 수 있는 1차적인 관건은 강사에게 달려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험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본 강사는 10여년 전부터 김준호 교수님 민법강의로 강의한 경험이 다수 있으며, 작년에는 ‘2016년 제22판 민법 강의’ 개정판 작업에 참여하여 김준호 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김준호 교수님 민법강의를 제대로 분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부방법론 및 여타 강의진행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dhwoon21@hanmail.net으로 질문하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도표

조문 ⇒ 판례 ⇒ 사례로 이어지는 ‘통합 기본강의’를 위해 특히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설명할 때 채권총론 및 채권각론 그리고 친족상속법의 쟁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법총칙이나 물권법이 채권총론이나 채권각론보다 횟수가 1~2회 정도 많습니다(총 2회 보강).

민법전반(2회), 민법총칙(10회), 물권법(11회), 채권총론(9회), 채권각론(9회) 총 41회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8시 45분까지 전일 배운 내용에 대한 핵심 OX지문 및 사례 쪽지시험 및 이에 대한 해설 강의가 25분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규 수업시작 시간은 오전 9시 10분입니다.

| 회차 | 과목 | 강의날짜 | 주제(김준호 제22판 페이지) |
|-----|---------------|------------|--|
| 1회 | 이하 민총 10회 | 3월 12일 | p.6 민법의 법원 ~ p.63 |
| 2회 | | 3월 14일 | p.64 권리의 주체 ~p.104 |
| 3회 | | 3월 15일 | p.105 자연인의 주소 ~p.123 p.191 권리의 객체~p.253 |
| 4회 | | 3월 16일 | p.253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p.287 |
| 5회 | | 3월 17일 | p.287 착오~p.311 |
| 6회 | | 3월 18일 | p.311 대리~p.373 |
| 7회 | | 3월 18일(보강) | p.123 법인~p.190(법인은 대리법리를 공부한 후 검토) |
| 8회 | | 3월 19일 | p.154 법인의 기관~ p.190 |
| 9회 | | 3월 21일 | p.375 무효와 취소~p.414 |
| 10회 | | 3월 22일 | p.414 소멸시효~민총 끝 |
| 1회 | 이하 물권 11회 | 3월 23일 | p.472 물권법 일반~ p.540 |
| 2회 | | 3월 24일 | p.540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p.592 |
| 3회 | | 3월 25일 | p.592 점유권~ p.655 |
| 4회 | | 3월 26일 | p.655 소유권의 취득~ p.685 |
| 5회 | | 3월 28일 | p.685 철회~ p.739 |
| 6회 | | 3월 29일 | p.739 합유~ p.770 |
| 7회 | | 3월 29일(보강) | p.770 용익물권~p.807 ; p.930 법정지상권~ p.937 |
| 8회 | | 3월 30일 | p.807 전세권~ p.844 ; p.875 질권~ p.906 |
| 9회 | | 3월 31일 | p.844 유치권~p.875 ; p.906 저당권~ p.944 |
| 10회 | | 4월 1일 | p.94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p.976 |
| 11회 | | 4월 2일 | p.977 비전형담보물권~ 물권법 끝 |
| 1회 | 이하 채총 총 9회 | 4월 4일 | p.1011 서설~ p.1080 |
| 2회 | | 4월 5일 | p.1080 이행불능~ p.1130 |
| 3회 | | 4월 6일 | p.1131 손해배상액의 산정~ p.1175 |
| 4회 | | 4월 7일 | p.1176 채권자취소권~ p.1214 |
| 5회 | | 4월 8일 | p.121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p.1249 |
| 6회 | | 4월 9일 | p.1249 채무의 인수~ p.1295 |
| 7회 | | 4월 11일 | p.1295 변제자대위~ p.1340 |
| 8회 | | 4월 12일 | p.1340 경개~ p.1383 |
| 8회 | 이하 채각 총 9회 | 4월 13일 | p.1383 보증채무~ 채권총론 끝 |
| 1회 | | 4월 14일 | p.1416 개별적 채권관계~ p.1485 |
| 2회 | | 4월 15일 | p.1485 위험부담~ p.1525 |
| 3회 | | 4월 16일 | p.1525 해제의 효과~ p.1583 |
| 4회 | | 4월 18일 | p.1583 매도인의 담보책임~ p.1637 |
| 5회 | | 4월 19일 | p.1637 임대차~ p.1678 |
| 6회 | | 4월 20일 | p.1678 특별법상의 임대차~ p.1728 |
| 7회 | | 4월 21일 | p.1729 여행계약~ p.1807 |
| 8회 | | 4월 22일 | p.1808 부당이득~p.1882 |
| 9회 | | 4월 23일 | p.1883 특수불법행위~ 채권각론 끝 |

※ 강의계획서를 마치며

제가 확신하는 바는 민법정복에 있어 어느 책과 어떤 강사를 선택할지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은 수험생들이 선택한 책과 강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함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민법정복에 대한 저의 소신은 다른 강사님들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저의 강의방향에 공감하고 또 이를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번 ‘통합기본강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법론 및 여타 강의진행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으로 질문하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